서울시 권역별 문화적 특성 연구

연 구 원 박 현 주*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주5일 근무제의 확산과 소득증대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게 하였고, 국가에서도 문화진흥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문화예산 증액과 문화의 상품화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국민의 문화향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향수의 주체가 되는 국민의 문화욕구를 조사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6)에서 시행한 '서울시민의 문화활동과 정보이용현황 조사'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민의 권역별 문화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문화정책 수립이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지를 파악하였다.

목 차

Ⅰ. 서 론
Ⅱ. 문화자본이론
Ⅲ. 연구 분석
1. 권역별 사회경제적 특성
2. 권역별 문화적 특성
Ⅳ. 결 론

Ⅰ. 서 론

문화관광부와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06 문화향수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연간 예술행사 관람비율이 2000년 54.8%, 2003년 62.4%, 2006년 65.8% 등 점차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예술행사 관람비율의 증가가 영화 관람의 상승률[1]에 따른 데 기인한다지

연락처: * 미래전략연구실 (02) 570-4307, hjpark@kisdi.re.kr

예술행사	2006년 조사	2003년 조사	2000년 조사
문학행사	4.4%	4.0%	5.1%
미술전시회	6.8%	10.4%	11.6%
클래식음악회/오페라	3.6%	6.3%	6.7%
전통예술공연	4.4%	5.2%	7.7%
연극	8.1%	11.1%	10.9%
무용	0.7%	1.1%	2.0%
영화	58.9%	53.3%	40.0%
대중가요콘서트/연예	10.0%	10.3%	8.6%

1) 자료: 문화관광부, 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6)

만 이러한 문화향유의 증대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소득 증대와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유네스코는 20세기가 과학과 기술의 거대한 발전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예견한 바 있다.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문화와 창의성이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이다. 세계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문화예술의 매체와 전달수단의 변화뿐만 아니라 범위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불러왔다. 국가에서는 문화진흥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문화예산 증액과 문화의 상품화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문화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의 하나라면 국민의 문화향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향수의 주체가 되는 국민의 문화욕구를 조사하여야 한다. 물론 문화관광부에서 문화향수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문화향수의 주체자인 거주지역민의 문화적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6)에서 시행한 '서울시민의 문화활동과 정보이용현황 조사'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민의 권역별 문화적 특성을 살펴 향후 문화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문화자본이론

부르디외는 현대사회에서 사회계급 내지 계층이 어떻게 유지되고 재생산되는지, 피지배계급 혹은 노동계급이 어떻게 자신들의 지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설명을 문화에 관한 분석을 통해 제기한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지배계급은 경제자본에서 문화자본으로 그 권력의 이동을 꾀해 왔다. 문화와 상징재는 의미를 파악함으로서만 그것을 소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질재와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문화와 상징재에 대한 이해와 감상의 방법을 미리 알고 있어야만 이해되고 감상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자본의 개념은 계발된 성향의 총체로서 감상이나 이해의 도식을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을 부르디외는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정의하였다. 첫 번째는 체화된 형태(embodied state)로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품위, 세련됨, 교양 등을 의미하는데, 이는 주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전수되어 아비투스(habitus)[2]의 형태로 나타난다. 두 번째는 객관화된 형태(objectified state)의 문화상품으로 문학작품, 미술작품, 유적, 악기, 기계 등의 형태로 존재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가치로서의 소유물뿐만 아니라 이것을 감식하고 향유할

2) 아비투스는 "같은 집단이나 계급구성원 모두에게 공통적인 인지, 개념, 행위의 도식 혹은 내면화된 구조의 주관적이지만 개인적이 아닌 체계"로서 간주되는데, 경제의 계급구분과 계급구성원들의 문화적 상징 및 생활양식간을 매개하는 구조다(Bourdieu, 1977:86, 양종회 1994:151 재인용).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된다는 데 있다. 세 번째는 제도화된 형태(institutionalized state)의 문화자본으로 교육의 제도적 인정서와 같은 학교 졸업장이나 자격증 등을 의미한다.[3)]

이상에서 살펴본 부르디외의 이론은 문화자본이 단순히 현재의 계급적 위치의 부산물이나 반영물만이 아니라 개인의 생애 내에서 축적되어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현재의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자본 속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과 공식적인 교육의 영향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계급에 도달하기까지의 본인의 계급이동경로의 흔적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4)]

〈표 1〉 문화자본의 구분방식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구분방식	대상	Borudieu (1984)	DiMaggio (1982)	Achaffenburg & Maas(1997)	Anhier, Gerhards & Romo(1995)
문화자본의 존재형태에 따른 구분	물적대상	objectified state cultural capital			
	지식	Institutionalized cultural capital	Information	education and training	incorporated cultural capital
	선호나 관심	Embodied state cultural capital	Interest	Attendance	symbolic cultural capital
	행위		Acitivity	Knowledge	

자료: 이호영 · 장미혜 · 박현주(2006)

부르디외의 이론은 이후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계승되었다. 디마지오와 우씸(Dimaggio & Useem, 1978)은 가족의 사회계급과 정규교육의 수준과 질의 강한 상관관계가 문화적 재생산을 한층 강화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미국에서 문화소비에서의 다양한 계급 유형은 임의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구조와 연결되어 있으며, 다양한 문화적 사회화 유형이 심미적 취향을 구성하고, 엘리트 응집을 강화하고, 상위 · 중상위 계급이 그들의 문화적 사회적 지위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드 그라프와 동료들(De Graaf et al, 2000)은 부모의 독서형태가 아동의 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가 15세가 되기 이전에 부모와 박물관, 역사박물관, 오페

3) 문화자본에 대한 정의는 이외에도 아니에(Anheier, 1995)는 사회화 과정에서 습득된 오랫동안 지속되는 성향과 습관이라 정의하였으며, 스와츠(Swartz, 1977)는 상이한 계급들이 전수하려고 하는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능력, 라몽과 라우어(Lamont & Lareau, 1988)는 제도화되고 광범위하게 공유된 태도, 선호, 공적 지식, 행동, 상품 그리고 자격증과 같이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배제에 사용되는 고급문화로 정해진 신호라고 정의하였다.

4) 이호영 · 장미혜 · 박현주(2006)

라나 발레공연, 클래식 음악공연, 연극공연에 1년에 몇 회 참여했는지를 질문하였다.

국내에서의 기존 연구들은 계급간 문화적 취향의 차이를 주로 교육에서 찾고 있다. 양종회(1994)는 문화적 취향이 계급(계층)보다는 교육 및 직업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가 매우 급격한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높은 사회적·지리적 이동을 통해 계급체계가 매우 유동적이고 내부적으로 파편화됨에 기인한다. 뿐만 아니라 양종회는 한국사회가 고급문화의 전통이 약하고 전통문화도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점도 지적하였다. 장미혜(2001)는 소비양식에 미치는 경제자본과 문화자본[5]의 상대적 효과를 비교 연구하여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의 문화자본보다 본인의 문화자본이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본인의 생애 내에서 상승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문화자본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젊은 세대의 소비취향이 부모의 문화자본에 영향을 받고 있음이 이 연구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사회 내에서도 부모의 출신계급에 따른 문화자본의 습득 기회의 차이가 한국사회의 계급적인 질서를 형성하는 새로운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조은(2002)은 계급별 문화자본과 계급 재생산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문화자본이 경제자본보다 설명력이 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문화자본이 경제자본과 다른 방식으로 계급 재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즉, 상층계급에서는 문화자본이, 하층계급에서는 경제자본이 계급 재생산에서 더 중요하고, 전문관리직의 경우 문화자본에 기반한 계급 재생산이 이루어짐을 밝혔다. 또한 자본가의 경우 문화자본을 경제자본화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층계급의 문화자본은 경제자본이 문화의 형태로 전환한 세습자본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Ⅲ. 연구 분석

본 연구의 관심은 서울시민의 문화적 특성이 권역별[6]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5) 이 연구에서 그녀는 문화자본의 보유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부모의 교육정도와 출신계층, 자녀의 교육정도를 살폈다.

6) 도심권: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북권: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동남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서남권: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번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자의 모집단은 만 15세 이상 50세 미만의 서울시민이며, 다단계층화 비례할당 표집의 방법에 의해 선정하였다. 조사는 2006년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3주간에 이루어졌으며, 구조화된 설문지에 대해 전문 면접인이 개별 가구 방문조사(face to face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 유효표본의 수는 1,001명이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였다.

이 자료들을 가지고 통계패키지인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권역별 문화적 특성을 검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교차분석, 대응분석을 사용하였다.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은 분할표의 행과 열, 행과 행, 열과 열의 관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기법으로, 비슷한 열의 구성이 되는 행끼리는 가깝게 배치되고, 비슷한 행의 구성이 되는 열끼리는 가깝게 배치되어 관계가 강한 행과 열은 가까이 배치되도록 좌표의 수치를 산출한다.[7] 이와 같은 원리를 통해 대응분석은 비슷한 분포를 갖는 범주들은 공간에서 서로 가까운 곳에 점으로 나타나고, 상이한 분포를 갖는 범주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나타나게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대응분석의 특징을 십분살려 권역별 특성에 대해 시각화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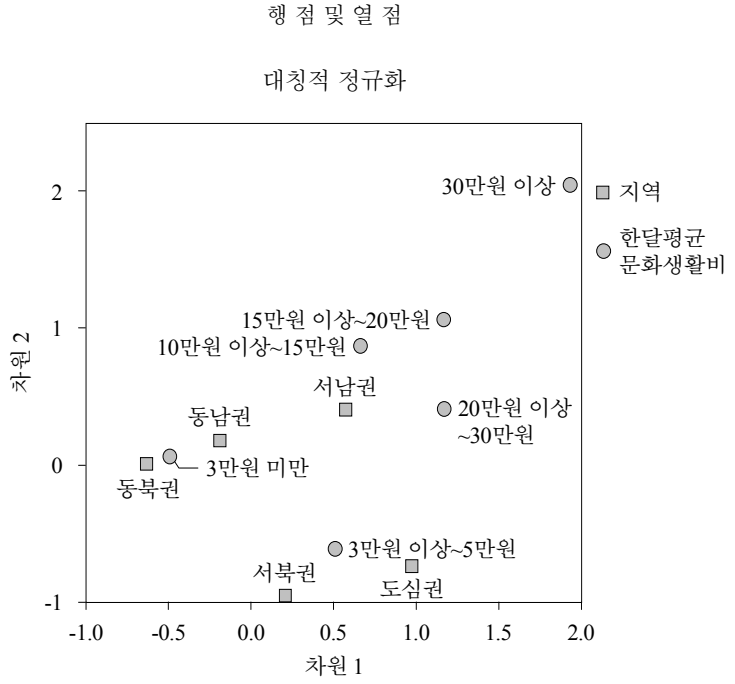
1. 권역별 사회경제적 특성

서울지역 권역별 사회경제적 환경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수준은 권역별간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소득을 권역별로 비교해보면, 도심권과 서북권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수준에서 권역별 거주자의 과반수가 차지한 것과 달리 동북권에서는 소득수준이 300만원 미만 수준이 주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을 살펴보면 도심권과 서북권 거주자들은 중층 이상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각각 81.1%, 76.5%로 타 권역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달 평균 문화생활비를 살펴보면 서남권 지역 거주자들이 타 권역 대비 문화향유를 위한 지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1〕의 대응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그림 1〕을 살펴보면 동남권과 동북권이 한달 평균 문화생활비가 3만원 미만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서남권이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도심권과 서북권이 3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문화생활비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대응일치 분석 결과는 앞서 설명한 〈표 2〉의 설명과 부합된다.

7) 노형진(2005)

〔그림 1〕 서울시 권역별과 한달 평균 문화생활비 간의 대응분석



〈표 2〉 권역별 사회경제적 환경

(단위: %)

		지 역					전체
		도심권 (n=53)	동북권 (n=328)	서북권 (n=119)	동남권 (n=200)	서남권 (n=301)	
교육 수준	고졸이하	35.8	38.7	37.0	38.0	36.9	37.7
	중고재학	15.1	12.8	14.3	9.0	11.0	11.8
	대학재학	13.2	10.1	8.4	8.0	9.3	9.4
	전문대졸	11.3	13.7	12.6	17.0	17.9	15.4
	대졸이상	24.5	24.7	27.7	28.0	24.9	25.8
소득	200만원 미만	5.7	2.7	0.8	10.0	6.3	5.2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0.8	54.9	36.1	28.5	29.2	37.9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50.9	35.1	56.3	34.0	36.2	38.6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7.0	5.5	6.7	19.5	18.3	12.9
	500만원 이상	5.7	1.8	0.0	8.0	10.0	5.5

		지 역					전체
		도심권 (n=53)	동북권 (n=328)	서북권 (n=119)	동남권 (n=200)	서남권 (n=301)	
주관적 계층	중하층 이하	18.9	54.3	23.5	56.5	34.6	43.3
	중층 이상	81.1	45.7	76.5	43.5	65.4	56.7
한달 평균 문화 생활비	3만원 미만	26.4	69.8	44.5	60.0	38.5	53.1
	3만원 이상~5만원 미만	50.9	17.4	43.7	21.0	26.9	25.9
	6만원 이상~10만원 미만	9.4	8.8	10.1	7.5	18.3	11.6
	10만원 이상~15만원 미만	7.5	4.0	1.7	7.0	11.6	6.8
	15만원 이상~20만원 미만	3.8	0.0	0.0	3.5	3.7	2.0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1.9	0.0	0.0	1.0	0.7	0.5
	30만원 이상	0.0	0.0	0.0	0.0	0.3	0.1

2. 권역별 문화적 특성

가. 15세 이전 문화자본 형성

부르디외는 문화자본의 첫 번째 형태로 체화된 형태(embodied state)로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품위, 세련됨, 교양 등을 설명한 바 있는데, 이는 주로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에 의해

〈표 3〉 서울시 권역별 가족공유 문화자본 교차분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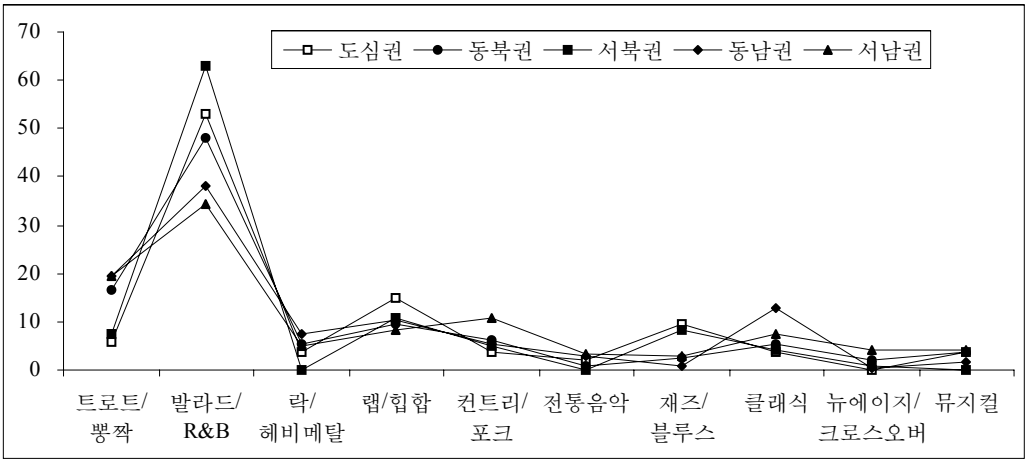
(15세 이전) 가족공유 문화자본		지역					X^2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	
클래식 음악 청취	없다	73.6	88.1	76.5	87.5	71.1	38.443 (p=.000)
	있다	26.4	11.9	23.5	12.5	28.9	
영화 관람	없다	34.0	54.6	23.5	68.5	39.2	81.423 (p=.000)
	있다	66.0	45.4	76.5	31.5	60.8	
클래식 음악회 관람	없다	73.6	94.5	76.5	89.0	73.8	63.223 (p=.000)
	있다	26.4	5.5	23.5	11.0	26.2	
미술전시회 관람	없다	56.6	86.6	66.4	64.5	69.4	49.886 (p=.000)
	있다	43.4	13.4	33.6	35.5	30.6	
교양서적/소설 등 책 구입	없다	37.7	50.3	36.1	42.5	45.8	9.228 (p=.056)
	있다	62.3	49.7	63.9	57.5	54.2	

전수되어진다. 이에 본 고에서는 가족과 공유한 문화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15세 이전 가족이 함께 클래식 음악을 들었다", "15세 이전 가족들과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간 적이 있다", "15세 이전 가족들과 클래식 음악회를 보러 간 적이 있다", "15세 이전 가족들과 미술전시회를 보러 간 적이 있다", "15세 이전 부모님과 함께 참고서가 아닌 교양도서/소설 등 책을 사러 서점에 간 적이 있다" 등 5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민들은 15세 이전 가족이 공유한 문화활동으로 영화 관람과 교양서적/소설 등 책 구입의 행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클래식 음악 청취'의 경우 서남권, 도심권, 서북권에서, '영화관람'의 경우 서북권, 도심권, 서남권에서, '클래식 음악회 관람'의 경우 도심권, 서남권, 서북권에서, '미술전시회 관람'의 경우 도심권, 동남권, 서북권에서, '서적구입'의 경우 서북권, 도심권에서 비교적 높은 활동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15세 이전 문화자본 형성이 여타 지역에 비해 도심권, 서북권, 서남권에서 더 활발하게 축적된 것을 알 수 있다.

나. 선호음악장르

권역별 선호음악장르를 살펴보면 도심권과 서북권은 트로트/뽕짝에서 낮은 선호도를 보인 반면 발라드/R&B에서 타 권역 대비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권과 서북권의 분포는 한달 평균 문화생활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한편 동북권 지역주민의 경우 가장 높은 선호음악장르로 트로트/뽕짝을 보여준다. 동북권 지역주민은 앞서 분석한 소득수준에서 타 권역대비 가장 낮은 수준을, 한달 평균 문화생활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권역별 선호음악장르



다. 선호영화장르

선호하는 영화장르에 대해 좋아하는 정도에 따라 0~6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 권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공포/호러'장르의 경우 동남권에서 가장 선호하고 그 뒤를 서북권이 뒤따르고 있다. 여타 지역은 평균 이하의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드라마/멜로물' 장르의 경우는 서북권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이상인 권역에서 도심권, 동북권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미스테리/스릴러' 장르의 경우 동남권에서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북권과 동북권이 평균 이상의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예술영화/다큐멘터리' 장르의 경우 역시 동남권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그 뒤를 서남권과 동북권이,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여주는 지역은 서북권이었다. '액션/어드벤처'장르의 경우 동북권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SF/판타지' 장르를 가장 선호하는 지역 역시 동북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동남권이 따르고 있다. '코미디' 장르의 경우 역시 동북권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영화' 장르는 동남권과 동북권에서, '애니메이션' 장르의 경우 동북권에서, '성인영화' 장르는 동남권과 서남권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표 4〉 권역별 선호영화장르

(단위: 평균점수)

	지 역					전체 평균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	
공포/호러	3.40	3.46	3.86	4.12	3.40	3.62
드라마/멜로물	4.17	4.16	4.33	4.03	3.87	4.07
미스테리/스릴러	3.83	4.13	4.17	4.31	3.92	4.09
예술영화/다큐멘터리	3.62	3.72	3.35	3.87	3.78	3.72
액션/어드밴처	3.92	4.30	4.17	4.20	4.19	4.21
SF/판타지	3.70	4.24	4.05	4.17	4.05	4.12
코미디	4.34	4.65	4.29	4.08	4.34	4.38
무협영화	3.17	3.88	3.66	3.89	3.53	3.71
애니메이션	3.43	3.80	3.36	3.55	3.48	3.58
성인영화	2.72	2.78	2.90	3.44	3.06	3.01

라. 지난 1년(2005년 8월~2006년 7월)간 직접관람(감상) 문화활동

권역별 직접관람(감상) 문화활동을 살펴본 결과 영화를 제외한 여타 장르의 빈도수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관광부에서 조사한 '2006 문화향수실태조사'와도 일치한다. '뮤지컬'의 직접관람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도심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그 뒤를

서남권이 뒤따르고 있다. '클래식음악 연주회, 오페라' 관람의 경우 서남권이 가장 높은 관람 점수를 보이고 있고, 도심권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전통예술공연'의 경우 역시 서남권에서 가장 많은 관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지역은 평균 이하이다. '미술전시회' 관람의 경우는 도심권 거주자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동남권과 서남권이 따른다. '연극' 관람은 서남권과 도심권, 서북권 순으로 관람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음악가수의 콘서트'의 경우는 여타 문화활동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서남권이 가장 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서북권이 따르고 있다. '영화' 관람은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평균 이상의 관람행태를 보여주었다. 도심권에서 가장 높은 관람활동을 보여 주었고 그 뒤를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이 따른다. '문학작품' 감상은 도심권에서, 그 뒤를 서남권과 서북권이 따르고 있지만 도심권과의 격차가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도서' 감상 역시 도심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만화책'의 경우 서남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종합해보면 공연관람의 경우 서남권 지역주민이 대체로 높은 점수를, 도심권 지역주민이 독서 감상에 높은 활동을 하고 있다.

〈표 5〉 권역별 직접관람(감상) 문화활동

(단위: 평균점수)

직접 관람(감상)	지 역					전체 평균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	
뮤지컬	0.49	0.20	0.15	0.06	0.43	0.25
클래식 음악 연주회, 오페라	0.25	0.11	0.08	0.04	0.28	0.15
전통예술공연	0.09	0.17	0.04	0.13	0.29	0.18
미술전시회	0.51	0.22	0.38	0.44	0.41	0.35
연극	0.51	0.32	0.50	0.14	0.68	0.42
대중음악 가수의 콘서트	0.36	0.19	0.52	0.25	0.72	0.41
영화	6.92	6.29	5.76	3.68	5.86	5.61
문학작품	8.51	2.84	3.86	2.16	3.93	3.45
교양도서	4.75	1.03	1.25	1.54	3.25	2.02
만화책	1.96	1.92	1.79	1.36	5.79	2.96

* 시리즈물은 1질로 환산

마. 지난 1년(2005년 8월~2006년 7월)간 매체활용 관람(감상) 문화활동

TV, 비디오, DVD, 컴퓨터(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문화활동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직접관람(감상)과 평균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다만 대중취향이라 할 수 있는 '대중음

악 가수의 콘서트, 영화감상, 영화소개 프로그램' 등의 경우 비교적 직접관람(감상) 보다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뮤지컬' 장르의 경우 매체활용 관람(감상)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직접관람 결과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도심권 거주지역민의 경우 뮤지컬 관람이 직접관람보다 매체활용을 통해서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래식 음악연주회, 오페라' 관람의 경우 역시 도심권 거주지역민에서 가장 높은 관람점수를 보여주었다. 이 역시 직접관람보다 더 높은 평균점수를 보여준다. '전통예술공연' 관람을 살펴보면 직접관람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여준 서남권이 매체활용 관람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전시회'와 '연극' 관람의 경우 관람의 특성상 매체활용보다는 직접관람의 평균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음악 가수의 콘서트'와 '책소개 프로그램'은 직접관람(감상) 문화활동에서 그다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던 동남권 거주지역민이 가장 높은 매체활용 문화활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권역별 매체활용 관람(감상) 문화활동

(단위: 평균점수)

매체활용 관람(감상)	지 역					전체 평균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	
뮤지컬	0.89	0.05	0.13	0.04	0.34	0.19
클래식 음악 연주회, 오페라	0.66	0.05	0.02	0.14	0.33	0.18
전통예술공연	0.34	0.07	0.01	0.23	0.37	0.20
미술전시회	0.28	0.06	0.02	0.25	0.35	0.19
연극	0.66	0.11	0.09	0.14	0.42	0.24
대중음악 가수의 콘서트	0.85	1.94	0.78	3.52	1.49	1.93
영화감상	12.81	9.07	11.96	4.46	6.12	7.80
영화소개 프로그램	4.36	12.10	6.16	9.57	11.27	10.23
책소개 프로그램	2.57	2.25	1.87	5.84	1.92	2.84
시리즈물 형태의 만화책	0.28	0.41	0.04	1.19	4.47	1.73

바. 취향 공유자수

권역별 취향 공유자 수를 살펴보면, 도심권은 '4~6명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54.7%로 가장 높게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북권은 '없다'에 40.9%, 서북권 역시 '없다'에 36.1%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동남권은 '1~3명 이하'에 53.5%가, 서남권의 경우 문화취향 공유자 수가 6명 이하까지의 분포가 비교적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권역별과 취향공유자 수 간의 대응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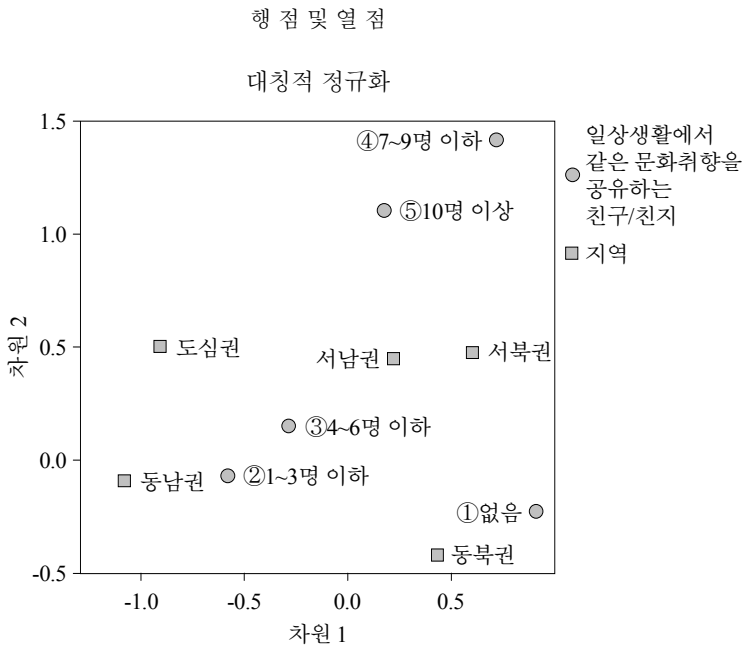
〈표 7〉 권역별 취향 공유자 수

(단위: %)

취향 공유		지 역					X^2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	
문화취향 공유 친구/친지	없음	3.8	40.9	36.1	6.0	28.9	156.057 (p=.000)
	1~3명 이하	34.0	27.1	18.5	53.5	29.9	
	4~6명 이하	54.7	28.0	31.9	38.0	27.9	
	7~9명 이하	1.9	2.4	10.9	1.5	9.3	
	10명 이상	5.7	1.5	2.5	1.0	4.0	

〔그림 3〕을 살펴보면 서북권과 서남권의 취향 공유자 수 분포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권 지역주민은 타 권역대비 취향 공유자수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반해 동북권 지역주민이 문화취향 공유자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서울시 권역별과 취향공유자 수 간의 대응분석



한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비교하여 비슷한 문화취향을 가진 이들이 어느 쪽에 더 분포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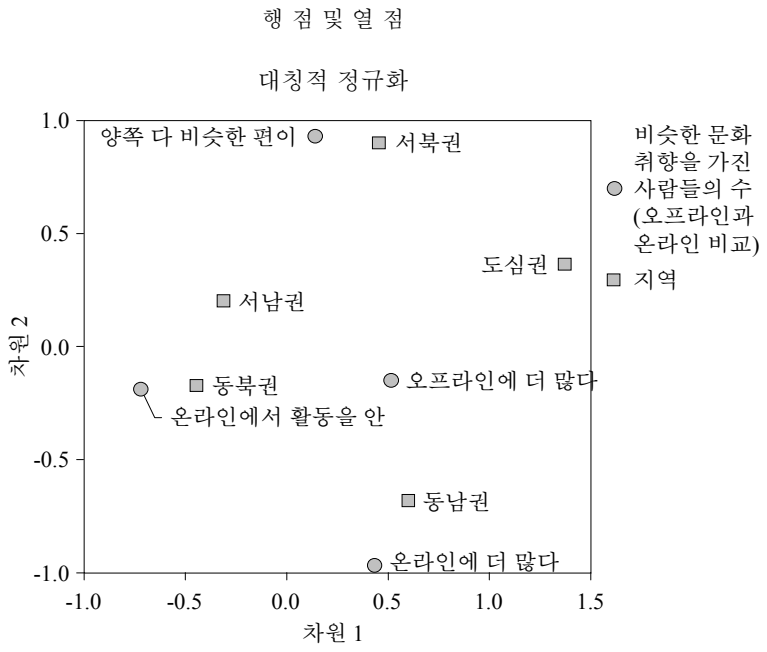
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모든 권역에서 오프라인에 취향 공유자가 더 많다고 응답하였다. 도심권의 경우 오프라인에 더 많은 취향 공유자 수를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타 권역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비교적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온라인에 비슷한 문화취향을 가진 이들이 많다라고 응답한 항목의 경우 동남권이 여타 권역에 비해 11.0%로 높게 나타났다.

〈표 8〉 권역별 온/오프라인 취향 공유자 수

(단위: %)

취향 공유		지역					X^2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	
비슷한 문화 취향 가진 사람 수 (온/오프라인 비교)	온라인에 더 많다	3.8	2.7	0.8	11.0	6.0	147.870 (p=.000)
	오프라인에 더 많다	71.7	36.6	47.1	57.0	30.2	
	양쪽 다 비슷	18.9	7.6	18.5	4.5	14.0	
	잘 모름	5.7	7.0	16.8	5.0	11.0	
	온라인활동 안함	0.0	46.0	16.8	22.5	38.9	

〔그림 4〕 서울시 권역별과 온/오프라인 취향공유자 수 간의 대응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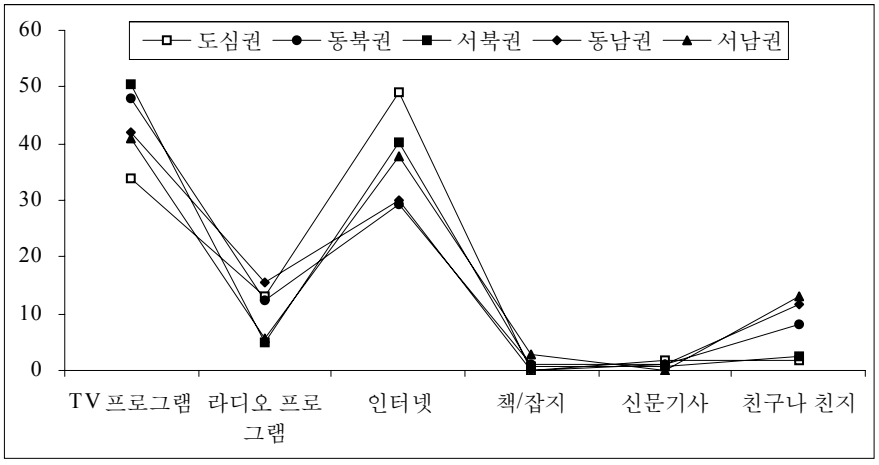


한편 〔그림 4〕의 대응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동북권의 경우 온라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에 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남권의 경우 온라인에 더 많다라는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동남권이 '온라인에 더 많다'라는 항목에 대해서 타 권역대비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는 것이지, 동남권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문화취향 공유자 수가 더 많다라는 것은 아니다. 대응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주목할 점은 행과 열 좌표점들의 위치는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즉 행좌표점들 간의 거리와 행과 열좌표점들 간의 거리는 기하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 새로운 음악, 영화 정보인지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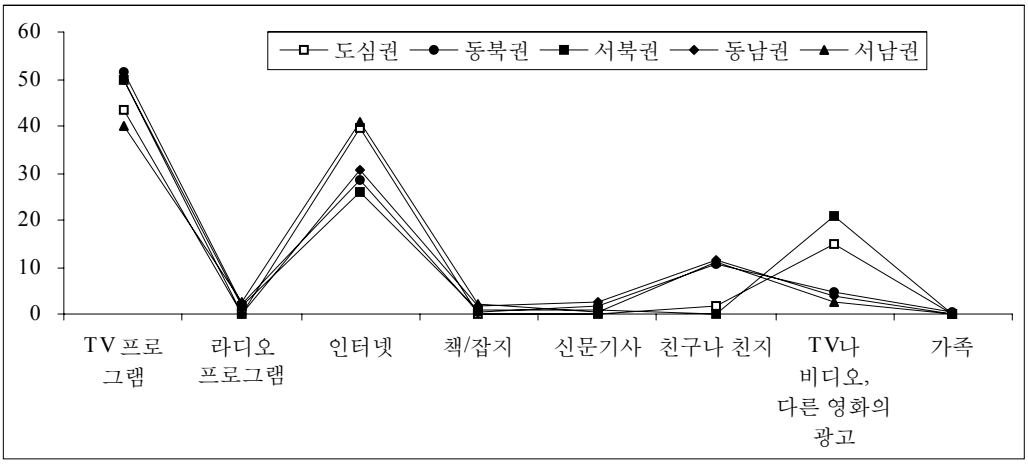
새로운 음악에 대한 정보 취득 경로로 도심권을 제외한 여타 권역별이 TV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권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음악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타 권역 거주지역민들 역시 TV 프로그램 다음으로 인터넷을 새로운 정보 취득 경로로 꼽았다.

〔그림 5〕 서울시 권역별 새로운 음악 정보인지 경로



한편 새로운 영화에 대한 정보취득의 경우는 모든 권역에서 TV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남권과 도심권의 경우 인터넷의 영향이 TV프로그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장르 역시 음악장르처럼 새로운 정보 취득 경로로 TV 프로그램 다음으로 인터넷을 꼽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인터넷이 문화저변 확대를 위한 매체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6〕 서울시 권역별 새로운 영화 정보인지 경로



아. 인터넷이 우리 사회의 문화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이 우리 사회의 문화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냐는 질문[8]에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주었다. 먼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항목에 도심권 거주지역민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고, 그 뒤를 동남권이 따르고 있다. '전반적인 문화수준 향상' 항목 역시 도심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그 뒤를 동남권이 따른다. '세대간 문화격차의 해소' 항목에 있어서는 서남권 거주지역민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해 주었다.

〈표 9〉 권역별 인터넷이 우리 사회의 문화에 미치는 영향

(단위: 평균점수)

	지 역					전체 평균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3.25	2.98	3.04	3.20	3.11	3.08
전반적인 문화수준 향상	3.30	2.98	2.95	3.10	3.05	3.04
세대간 문화격차의 해소	2.79	2.84	2.50	2.85	2.92	2.83

8)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점,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2점, 도움이 되는 편이다 3점,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 4점 부과

Ⅳ. 결 론

문화격차란 "문화활동에 대한 접근과 향수가 각 개인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문화불평등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박용치, 2003). 정보화 시대 문화예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취득한다는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매체를 통한 문화활동의 평균점수가 직접관람의 형태인 미술전시회와 연극을 제외한 여타 장르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본 조사결과는 문화격차가 단순히 문화격차만이 아님을 시사한다. 조사결과 직접관람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매체를 활용한 문화활동도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문화향수의 주체자인 거주지역민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더 없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위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권역별 거주지역민들의 문화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도심권 거주지역민의 경우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의 평균 소득수준과 중층 이상의 주관적 계층자,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의 한달 평균 문화생활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5세 이전 가족이 함께한 문화자본 형성의 경우 타 권역 대비 클래식 음악회 관람, 미술전시회 관람에서 높은 빈도율을 보여주었다. 선호음악장르로는 발라드/R&B를 가장 높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 권역 대비 랩/힙합, 재즈/블루스, 뮤지컬 장르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호하는 영화장르의 경우 드라마/멜로물과 코미디에서 다른 장르에 비해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문화활동의 직접관람과 매체활용도는 도심권 거주지역민들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뮤지컬, 클래식 음악연주회, 미술전시회, 연극, 영화감상, 독서감상 등 문화활동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적극적 문화활동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도심권 거주지역민의 문화취향 공유자 수의 경우 4~6명 이하로 여타 권역 대비 가장 많은 공유자를 두고 있다.

동북권 거주지역민의 경우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평균 소득수준과 중하층 이하의 주관적 계층자, 3만원 미만의 한달 평균 문화생활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음악장르로는 발라드/R&B를 가장 높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액션/어드벤처, SF/판타지, 코미디, 애니메이션 영화장르의 선호도가 여타 권역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화활동 직접관람의 경우 영화를 제외한 모든 문화활동에서 평균 이하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고, 매체활용을 통한 문화활동의 경우 영화소개프로그램이 타 권역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북권 거주지역민의 문화취향 공유자 수는 없다(40.9%)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활동 참여도가 매우 낮은데서도 알 수 있다.

서북권 거주지역민의 경우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이들이 56.3%를 차

지하고 있으며, 주관적 계층이 중층 이상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76.5%로 나타났다. 15세 이전의 가족공유 문화자본의 경우 여타 권역 대비 영화관람과 서적 구입에서 높은 빈도율을 보여주었다. 선호하는 음악장르로는 서북권 거주지역민이 다른 권역별 거주지역민들에 비해 발라드/R&B(63.0%)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화장르 선호에 있어서도 드라마/멜로물이 가장 강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거주지역민의 소득수준 역시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34.0%)인 이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평균 문화생활비의 경우 동북권과 마찬가지로 3만원 미만(60.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호음악장르로는 발라드/R&B를 가장 높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 권역 대비 트로트/뽕짝, 락/헤비메탈, 클래식 장르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호하는 영화장르의 경우 공포/호러, 미스테리/스릴러, 예술영화/다큐멘터리, 무협영화, 성인영화 장르에서 타 권역에 비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특기할 점은 음악장르와 영화장르가 고급취향과 대중취향 모두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소득수준의 분포에서도 일치되어 나타난다. 한편 매체를 활용한 문화활동을 살펴보면 대중음악 가수의 콘서트와 책소개 프로그램에서 타 권역에 비해 높은 선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의 문화취향 공유자는 1~3명이 5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서남권 거주지역민의 경우 소득수준과 2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이상까지 대체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는 한달 평균 문화생활비와도 일치한다. 15세 이전 가족공유 문화자본은 클래식 음악 청취(28.9%)가 여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선호하는 음악장르로는 컨트리/포크, 전통음악, 뉴에이지/크로스오버, 뮤지컬 장르가 여타 권역대비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문화활동의 직접관람의 경우 클래식음악 연주회, 전통예술공연, 연극, 대중음악 가수의 콘서트, 만화책에서 높은 평균점수를, 매체활용 문화활동의 경우 직접관람의 결과와 유사하게 전통예술공연, 미술전시회, 만화책에서 높은 평균점수를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서울시 권역별 문화적 특성 연구결과는 앞으로의 문화정책과 문화향유 확대방안이 지역별 문화적 특성에 따라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논 문〉

[1] 박용치(2003). "문화격차와 문화산업의 육성", 『법률행정논집』, 제10권, 2003.
[2] 양종회(1994).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문화분석: 문화적 지배논의를 중심으로", 『사회과

학』, 제33권 제1호, 1994.
[3] 장미혜(2001). "문화자본과 소비양식의 차이", 『한국사회학』, 2001.
[4] 조 은(2002). "문화자본과 계급재생산: 계급별 일상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002.

〈단행본〉

[5] 노형진(2005). "SPSS 12.0에 의한 조사방법 및 통계분석", 『형설출판사』, 2005.
[6] 문화관광부, 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6).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관광부, 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7] 이호영 · 장미혜 · 박현주(2006). "문화자본이 정보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해외 논문 및 저널〉

[8] De Graaf & Kraaykamp(2000). Parental Cultural Capital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 the Netherlands: A Refinement of the Cultural Capital Perspective, Sociology of Education, Vol. 73 No. 2, 2000.
[9] P. Dimaggio & M. Useem(1978). Social Class and Arts Consumption: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Class Differences in Exposure to the Arts in America, 1978.

〈해외 단행본〉

[10] Bourdieu, P.(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최종철 역(1995),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 · 下, 새물결.